



비즈 프리즘 | '포스트 수능 마케팅' 돌입한 유통업계

“수험표 가져와, 화끈하게 깎아줄게”

롯데백, 패션 상품 구매시 상품권
홈플러스, PC·노트북 등 추가 할인 제공
ABC마트, 모든 신상품 20% 할인

유통업계가 3일 대학수능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겨냥한 '포스트 수능 마케팅'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위로하고, 미래 잠재 고객으로 꼽히는 예비 대학생의 마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예비 대학생들이 멋내기엔 관심이 높은 것에 착안해 패션 분야에 집중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까지 수험표 지참 고객이 10만 원 이상 패션 상품 구매 시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준다. 또 나이키, NBA 등 젊은층 수요가 높은 브랜드의 특별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현대백화점은 13일까지 중동점에서 '힐링워크 프로모션'을 연다. 수험표를 지참한 H포인트 멤버십 고객이 20만 원 이상 아우터 구매 시 2만 원 할인 쿠폰을 증정



미래 잠재 고객으로 꼽히는 예비 대학생들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포스트 수능 마케팅'이 한창이다. 수험생 할인을 제공하는 홈플러스(2020 가전 총결산 세일)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진행되는 '힐링워크 프로모션'.

한다. 신발속 ABC마트는 9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모든 신상품에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 가전기기 할인도 눈에 띈다. 홈플러스는 16일까지 진행하는 '2020 가전 총결산 세일' 일환으로 수험표를 제시하는 고객에게 삼성·LG 전자의 태블릿PC와 노트북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랜드는 27일까지 수험생 대상 '모바일 특별전'을 연다. 수험표를 지참한 전자랜드 멤버십 고객이 휴대폰 개통 시 편의점 GS25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롯데하이마트는 14일까지 '수능 끝 혜택 시작' 기획전을 진행한다. 수험표 지참 고객이 PC와 휴대폰 행사 상품 구매 시 구매 상품에 따라 최대 10만 원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준다.

이밖에도 서울 용산 HDC아파트몰

은 내년 2월 28일까지 수험생 대상 '새내기 등급 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10% 할인 쿠폰 5장, 포인트 10배(1%) 적립, 브랜드 최대 3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이재욱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을 격려하고 새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카스 0.0”가 필요한 사연 들려주세요” 오비맥주, 사연 선정해 주노의 일러스트로 재구성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3일부터 신제품 비알코올(N on-alcoholic) 음료 '카스 0.0' 출시를 기념해 '스마트 초이스(Smart Choice)' 캠페인(사진)을 펼친다.

'스마트 초이스'는 오리지널 맥주의 짜릿한 맛을 즐기고 싶지만 운동 전후, 다이어트,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알코올 음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카스 0.0가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카스 0.0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제로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카스 0.0가 필요한 사연을 공모한다. 참여를 원하면 3일부터 오비맥주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카스 0.0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사연을 남기면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417명을 선정해 총 1만 캔을 증정한다. 또한 응모 사연 중 최고의 사연 1점을 선정해 주노의 일러스트로 재구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비맥주가 첫 선을 보인 비알코올 카스 0.0는 비알코올이지만 맥주 고유의 짜릿하고 청량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스마트 분리공법'을 통해 알코올만 추출한다. 도수는 0.05% 미만이다.

재규어 랜드로버, 겨울맞이 무상 점검 실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로빈 폴겐)에서 안전한 겨울 주행을 위해 7일부터 31일까지 '2020 재규어 랜드로버 동계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재규어 랜드로버 전 고객을 대상으로 40여 개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재규어 랜드로버 글로벌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량 상태를 진단하는 'eVHC(electronic Vehicle Health Check)'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40여 가지의 진단 항목에는 엔진오일, 배터리,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과 외부 손상 상태, 에어 클리너, 브레이크 패드, 벨트류, 각종 동화 장치, 차체 하단부 누유 등이 포함된다. 차량 정비에 필요한 경우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상 수리 부품을 20% 할인한다. 원성열 기자

박정호 SKT 부회장, SK하이닉스도 맡는다



박정호(사진) SK텔레콤 부회장이 SK하이닉스를 함께 이끈다.

SK그룹은 3일 2021년 임원 인사를 내고 SK텔레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정호 부회장이 SK하이닉스 부회장직을 겸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의 '오른팔'로 통하는 박 부회장은 SK그룹의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룹 정보통신기술(ICT)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반도체와 ICT 업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3월부터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SK하이닉스는 박 부회장의 보임 배경에 대해 "빅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SK텔레콤 CEO와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부회장직을 겸임하며 융복합화가 심화되는 ICT 산업에서 반도체와 통신을 아우르는 SKICT 패밀리 리더십을 발휘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LGU+, 'U+tv' 개편...TV-모바일 이어본다

LG유플러스가 IPTV 'U+tv' 서비스를 개편했다. IPTV와 모바일 양방향으로 이어보고, 예능을 에피소드별로 풀라보고, 작품 배경음악을 찾아보는 등 3가지 핵심 서비스를 추가했다. 콘텐츠 중심으로 흡화면도 개편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TV와 모바일의 경계를 허물고 디바이스 간 끊김없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능 등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 이용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차량 관리도 구독형으로... 'BMW 프라임' 사전 오픈

소모품 교환·워런티 만료된 고객 대상
무상 점검·수리비 20% 할인 등 제공

BMW 코리아(대표 한상운)가 구독형 차량 관리 서비스 패키지인 'BMW 프라임'을 사전 오픈한다.

BMW 프라임은 소모품 교환 서비스인 BSI와 부품 보증 서비스인 워런티 프로그램이 만료된 고객(출고 8년 이하 차량에 한함)이 대상이다. 1년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구독 패키지에 따라 차량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BMW 프라임 스탠다드 패키지'를 구독하면 가입 기간동안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엔진오일 및 에어컨 필터를 추가 비용 없이 1회 교체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리비 20% 상시 할인 혜택과 픽업&딜리버리 서비스, 공항 셔틀 및 여행 기간 동안 차량 주차 등이 가능한 에어포트 서비스(차량 점검 제외)가 제공된다.

총 주행거리가 20만km 이내인 경우에는 'BMW 프라임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



구독형 차량 관리 서비스 패키지인 'BMW 프라임'. 사진제공 | BMW코리아

독할 수 있다. 'BMW 프라임 프리미엄 패키지'는 스탠다드 패키지 혜택에 더해 파워트레인까지 보증수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파워트레인 수리 한도는 1000만 원이며 자기부담금은 건당 10만 원이다.

BMW 프라임 가격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상이하다. 5시리즈를 기준으로 스탠다드 패키지의 경우 39만 원, 프리미엄 패키지의 경우 92만 원(각 1년 기준)부터 시작된다. BMW 프라임은 14일 사전 오픈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제현장.jpg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액세서리 사세요"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명품관이 기프트샵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한 쿠쿠수제트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액세서리함, 헤어집게핀, 손거울 등으로 구성했다. 곱, 입술, 딸기케이크 등 재미와 개성을 갖춘 디자인을 적용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한화 갤러리아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겨울철만 되면 심해지는 허리통증, 추나요법으로 치료 가능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허리통증, 즉 요통의 원인은 다양하다.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불안정한 자세가 지속될 때 요통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척추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고, 이로 인해 뼈와 신경조직 주위가 자극돼 요통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평소 척추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라면 요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추운 날씨 속 2주 이상의 허리통증이 지속된다면 추나요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은 치료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추나요법은 틀어진 뼈와 근육을 바로잡아 허리통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교통

사고 후유증이나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과 같은 척추관절 질환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요통은 방치하면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허리디스크 등 척추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허리통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체온조절이 중요하다. 외출할 때는 물론 실내에서도 보온에 신경을 쓰고, 온찜질을 하는 등 허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및 자동차사고 시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하다. 다만 환자 당 연간 20회로 급여회수가 제한되어 있어 내원하기 전 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양주 기림 한방병원
여인유 원장